

문화기획 부경문화 기획공연

그다음!

NEXT



기획 / 부경문화회
제작 / 가마골소극장
연출 / 이성규
원작 / 테렌시 맥랄리
출연 / 김경수
김미경 .

9.16 ▶ 9.30

평 일 P.M. 7/30
토.일 P.M. 4/30, 7/30
(18, 19일은 주말과 같은 시각에 공연)

가마골소극장
22-0869

작품해설

한 어리숙한 중년 남자(메리언)가 우연한 사무착오로 징병검사에 호출되어 사납기 '짜이 없는 여군 시험관(테크 중사)에게 수검을 받게 된다. 중년 남자 메리언은 자신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동명이인 대신에 잘못 소집된 것 같다고 계속 주장하나 국가 대리인의 권위를 엄격하게 지키려는 테크 중사에게는 통하지 않는다. 테크 중사는 메리언의 은밀한 사생활 및 사내의 수치스런 신체 부분까지 살살히 강압적으로 조사한다. 메리언은 불합격 판정을 받기 위해 필사적으로 대응해 보지만, 48세의 병약한 사내에게 내려진 신체검사 판정은 "합격"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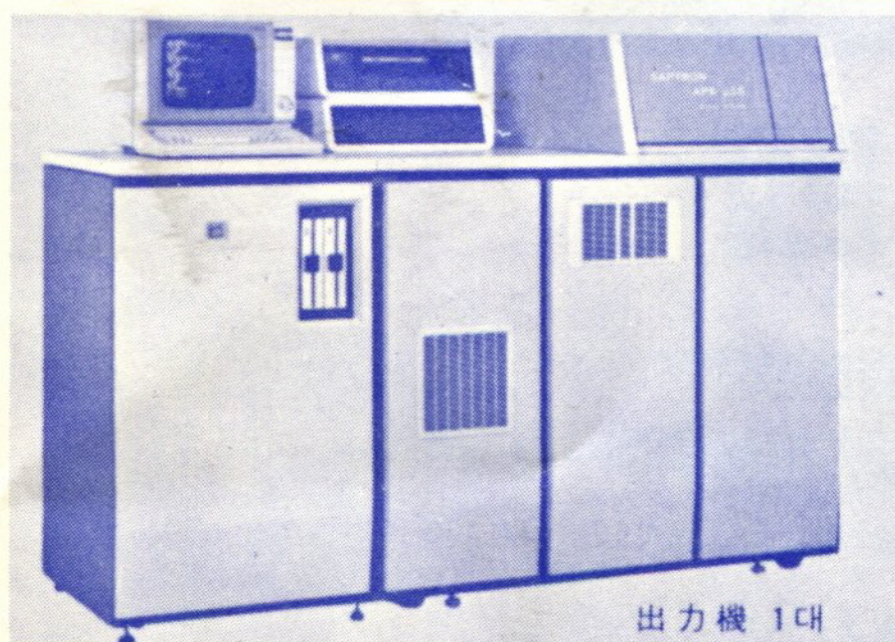


위와 같은 에피소드로 전개되는 이 극은 자유로운 개인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현대 문명세계의 힘, 여기에 상처받는 왜소한 남성의 모습을 코믹한 스트립의 동작으로 보여준다. 여자 시험관 테크 중사의 비여성적인 폭력은 사회조직의 경직된 힘이 잘못 적

응되는 사례를 상징하는데, 현대사회의 남성지위가 위축되는 현상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비대해지는 여성의 위치를 풍자적으로 암시하는 효과까지 지닌다고 볼 수 있다. 현대사회에서 소외당하는 보통남자의 존엄성과 분노를 역설적으로 표현한 블랙코메디.

가마골 소극장을 지원하는 회원업체

부산에서도 500페이지 조판을 단 하루만에 해결해 드립니다



영업증목

圖書出版·副教材
新聞·月刊誌
各種製本·原色寫眞製版
高級印刷·카렌다製作

第一印刷·材料社
第一文化社

부산시 중구 남포동 6가 68번지
TEL. 23-4511·4512·4513·4514·4515

연출자의 변



이야기보다는 재미를.

평범하지만 날카로움을.

웃음의 구조 밑에 분노와 야유를.

슬쩍 찌르는 은유.

소극장 가마골이 만드는 첫번째 경희극.

좀더 많은 관객이 즐겼으면 한다.

》약 력《

●1949년 부산産, 동아대학교 정외과졸

■ 주요연출작품

- 1978, 극단 마당 창립공연 / 사무엘·베케트 작 「고도를 기다리며」
- 1984.10. 극단 부두극장 창립공연 / F. 아라발 작 「건축사와 앳씨리 황제」
- 1985.4. 극단 부두극장 3회공연 / F. 아라발 작 「환도와 리스」
- 1973. 재학시 / 아더밀러 작 「세일즈맨의 죽음」

■ 주요출연작품

- 사무엘·베케트 작 「노름의 끝장」
- 에드워드·올비 작 「동물원 이야기」 피터 역
- 조성현 작 「미열」 남자역

가마골 소극장을 지원하는 회원업체

광 산 병 원

진료과목 / 외 과

내 과

정형외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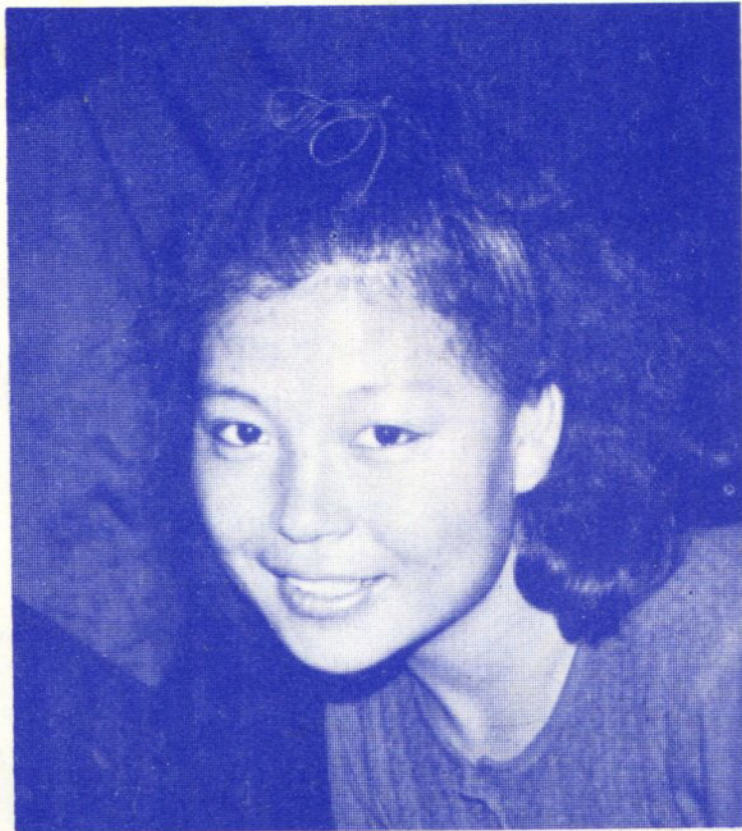
임상병리과·방사선과·건강관리과

공무원·일반선원 신체검사 및 운전면허 적성검사

부산시 중구 중앙동 4가 53

T. 44-5041~3

CAST



테크중사 ▶ 김 미 경

“당신은 징병검사를 받으러 온 것입니다. 시험관으로서 나는 당신에게 명령합니다. 바지를 벗으세요.”



메리언 ▶ 김 경 수

“나는 부분품으로 된 사람이 아닙니다. 난 인간이에요, 시민이죠. 나에게 게도 권리가 있어요.”

STAFF

- 조연출 / 허 정 숙
- 무대감독 / 박 은 흥
- 조 명 / 김 광 보
- 장 치 / 구 자 현
- 소 품 / 박 창 화
- 의 상 / 최 은 실
- 음 향 / 김 설 하

가마골 소극장을 지원하는 회원업체

만두전문 · 중화요리 전문

四海坊

부산역앞 TEL. 463-9883~4
미화당앞 TEL. 22-7303